MIRAE ASSET
미래에셋증권

Equity Research
2025.12.8

인디아 브리핑

정책 완화·성장 신호 속 인도 증시, 비중 확대 유지

Summary

지난 2주(11월 24일~12월 5일)간 인도 증시는 제한적인 상승세 속에서도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유지했다. 이 기간 Nifty50 지수는 약 +0.5%의 수익률을 기록하며, 이벤트가 집중된 환경에서도 방향성을 잃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

FY2Q26 실적 시즌이 시장 예상보다 양호한 수준으로 마무리된 후, 투자자들의 관심이 점차 개별 기업 실적에서 거시 변수와 정책 이벤트 등 탑다운 요인으로 이동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루피화 약세의 수혜로 수출 비중이 높은 IT서비스와 제약 업종이 시장 대비 초과 수익률을 기록하였다. 또한 12월 5일 인도 중앙은행(RBI)의 통화정책 발표를 전후로 은행 및 금융서비스 업종 역시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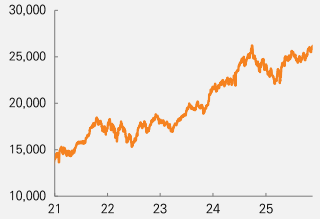
이 기간 시장 참여자들의 최대 관심사는 12월 5일 발표된 RBI의 통화정책 결정이었다. RBI는 기준금리를 25bp 인하하는 한편, 국채 매입과 USD/INR 스왑을 병행하며 유동성 공급 확대에 나섰다. 이는 단순한 금리 조정에 그치지 않고 경기 지원 의지를 분명히 한 정책 조합으로, 시장에서는 완화적 정책 기조가 재확인되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아울러 RBI는 FY26년 GDP 성장률 전망치를 7.3%로 상향 조정하고, CPI 인플레이션 전망은 2.0%로 낮췄다. 이는 물가 안정 기조 속 성장세가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이른바 '저물가와 견조한 성장' 국면에 대한 정책 당국의 인식을 반영한다. 이러한 전망 조정은 중기적으로 인도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지지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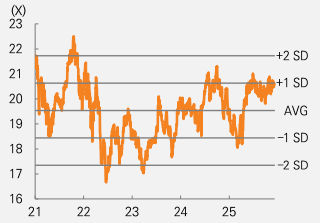
한편,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달러/루피 환율은 90선에 근접하며 약세 흐름을 보였고, 이는 단기적으로 인도 증시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다만 12월 5일 RBI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50억 달러 규모의 달러/루피 스왑과 국채 매입(OMO)을 동시에 발표하면서, 선물·스왑 시장을 중심으로 환율 불안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단기적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일부 존재하나, FY2Q26부터 예상되는 이익 모멘텀 개선 장기 인도 경제의 구조적 성장 스토리는 여전히 유효한 상황을 고려하여 인도에 대한 비중 확대 투자 의견을 유지한다. 또한, 인도 소비재 업종에 대한 비중 확대 전략도 유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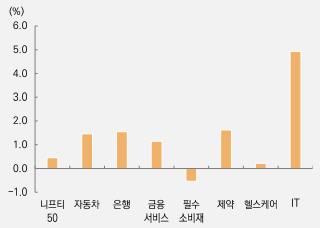
Nifty 50 추이



Nifty 50 밴드 차트



지난 2주간 인도 주요 업종 수익률 비교 I



지난 2주간 인도 주요 업종 수익률 비교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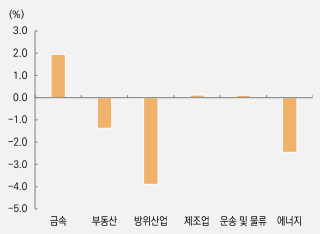


표 1. 인도 주요 지수 수익률

지수	투자수익률 (%)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5년
Nifty50	0.0	0.5	2.8	5.9	5.5	7.6	40.0	97.5
Nifty Next 50	-0.7	0.1	-0.9	2.5	1.9	-4.6	56.7	118.5
Nifty Midcap 50	-0.2	1.0	2.1	8.3	5.4	7.3	92.8	205.2
Nifty Midcap 100	-0.7	0.5	1.3	5.8	3.2	4.1	85.6	200.0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인도]
정우창
wcchung@miraeasset.com

주요 뉴스 및 이벤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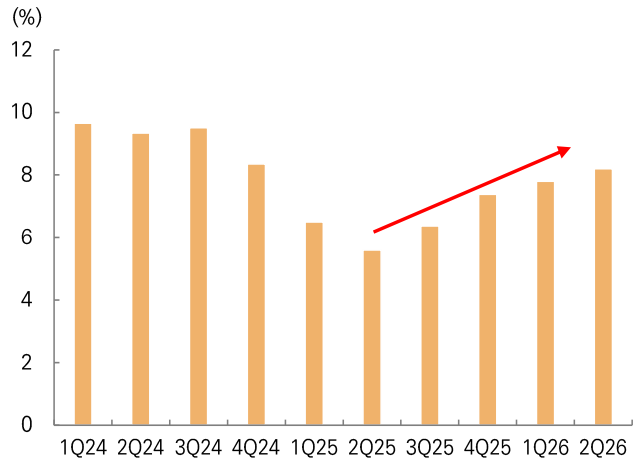
예상을 상회한 FY2Q26 GDP 성장

인도 통계청이 11월 28일 발표한 FY2Q26 실질 GDP 성장률은 8.2%를 기록하며, 7.0~7.5% 수준이었던 시장 및 인도중앙은행(RBI) 기대치를 상회하였다. 이번 수치는 최근 6개 분기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이다. 인플레이션 안정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동 분기 명목 GDP는 전년 대비 8.7% 증가로 집계되었다.

산업별로는 제조업이 9.1%, 건설업이 7.2%, 그리고 금융·부동산·전문서비스 등이 포함된 서비스 부문이 10.2% 성장하며, 2차 산업과 3차 산업 모두 고르게 성장세를 보였다. GDP의 약 57%를 차지하는 민간 소비는 7.9% 증가하며 견고한 모습을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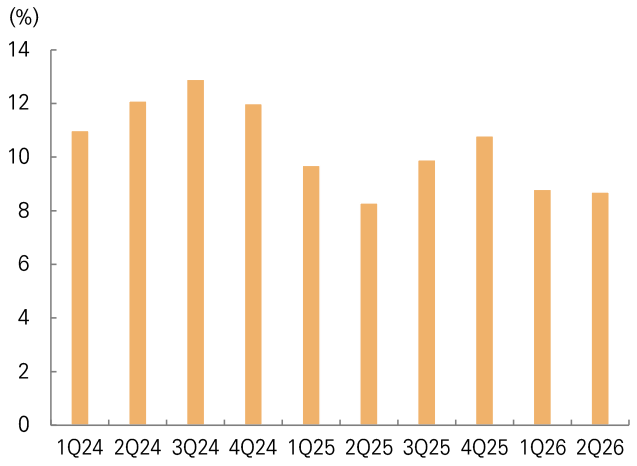
이번 GDP 서프라이즈를 반영하여, FY26년 연간 GDP 성장률은 기존 6% 중반에서 7% 초반 수준으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분기별 실질 GDP 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2. 분기별 명목 GDP 성장률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루피 환율 변동성 확대

11월 말부터 12월 초 사이 달러/루피 환율은 90선에 근접하며 약세 흐름을 보였고, 이는 단기적으로 인도 증시의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되었다. 이러한 약세는 추세적 요인보다는 단기적인 수급 불균형과 대외 변수의 영향이 겹쳐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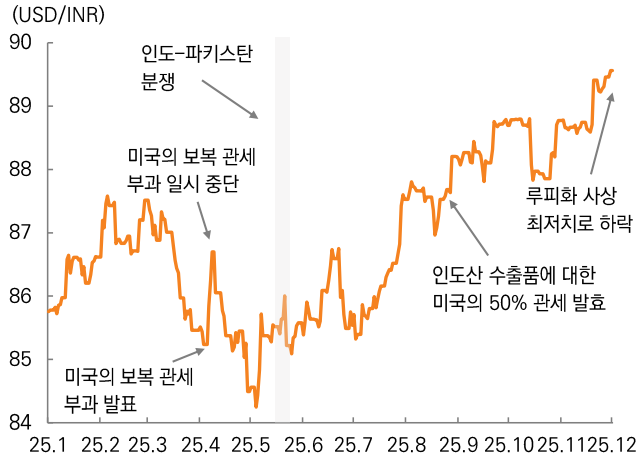
최근 인도와 미국 간 관세 협상이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점이 시장 심리를 약화시키고 있으며, 월말·월초 시점에 수입업체들의 결제성 달러 수요가 집중되면서 외환시장에서 일시적인 달러 수요 증가가 나타났다.

다만, 12월 5일 RBI가 기준금리 인하와 함께 50억 달러 규모의 달러/루피 스왑과 국채 매입(OMO)을 동시에 발표하면서, 선물·스왑 시장을 중심으로 환율 불안은 일부 완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업종별로는 환율의 긍정·부정 영향이 구분된다. IT 서비스와 일부 제약 기업처럼 달러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은 루피 약세가 이익 개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원유·원자재·중간재 등 핵심 수입 품목 비중이 큰 인도 경제 전반을 감안하면, 전반적으로 인도 주식시장에는 단기 부정적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현 환율 수준이 시장 불안을 자극하는 방향으로 확대될 경우, RBI가 속도 조절 차원의 시장 안정 조치를 검토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다만 RBI는 전통적으로 환율의 절대 수준을 겨냥해 개입하기보다는 급격한 변동성만을 관리하는 방식을 선호해 왔다는 점에서, 실제 개입이 이뤄지더라도 그 강도는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그림 3. 최근 루피화의 대달러 환율 추이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4. 주요 신흥국 환율 추이*

주: Y축 역축 적용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2025년 10월 산업 생산 부진: 구조적 둔화보다는 일회성 요인

12월 1일, 인도경제연구센터(CMIE,Centre for Monitoring Indian Economy)가 발표한 2025년 10월 인도 산업생산지수(IIP)는 전년 대비 0.4% 증가에 그쳐, 전월 4.6%를 밑돌았고 시장 컨센서스(2~3%대)도 하회했다.

부문별로 보면 전력(Electricity, 전체 산업 비중의 8.0%)은 -6.9% YoY, 광업(Mining, 14.4%)은 -1.8% YoY, 제조업(Manufacturing, 77.6%)은 +1.8% YoY에 그치며 전체적으로 성장 둔화가 두드러졌다.

이러한 둔화의 배경으로는 단순한 구조적 약세보다는 일시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몬순 기간이 10월까지 이어지면서 낮은 기온으로 인해 전력 사용량이 적었고, 광업 생산 일자에 영향을 미쳤다.

또한 2024년과 2025년의 축제 시점이 다르게 나타난 점도 산업생산지수(IIP)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2024년의 경우 디왈리 축제가 11월 1일에 있었기 때문에 10월에는 공장 셧다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2025년에는 디왈리 연휴가 10월 하순에 위치하면서, 해당 기간 동안 제조업 공장의 가동률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함께 2025년 9월에는 부가가치세(GST) 인하가 단행되면서 기업들이 축제 시즌 수요를 대비해 재고를 선제적으로 확보하는(front-loading) 움직임이 강화되었다. 자연스럽게 10월에는 이러한 재고 축적 효과가 해소되며 재고 소진과 생산 조정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번 10월 IIP 부진은 일회성 요인의 영향이 컸던 달로 보며, 이 시점만으로 인도 산업 생산이 구조적으로 둔화했다고 단정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표 2. 인도 산업생산(IIP) 전년 동월 대비 증감 추이 (%)

	비중	24.10	24.11	24.12	25.01	25.02	25.03	25.04	25.05	25.06	25.07	25.08	25.09	25.10
광업	14.4	0.9	1.9	2.7	4.4	1.6	1.2	-0.2	-0.1	-8.7	-7.2	6.6	-0.4	-1.8
제조업	77.6	4.4	5.5	3.7	5.8	2.8	4.0	3.1	3.2	3.7	6.0	3.8	5.6	1.8
전력	8.0	2.0	4.4	6.2	2.4	3.6	7.5	1.7	-4.7	-1.2	3.7	4.1	3.1	-6.9
IIP(산업생산지수)	100.0	3.7	5.0	3.7	5.2	2.7	3.9	2.6	1.9	1.5	4.3	4.1	4.6	0.4

자료: CMI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RBI, 25bp 인하와 유동성 확대 병행…성장·물가 전망도 조정

인도 중앙은행(RBI)은 12월 3~5일 열린 MPC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5.25%로 25bp 인하하고, 1조 루피 규모의 국채 매입과 50억 달러 외환 스왑을 병행하는 유동성 완화 패키지를 발표했다. 올해 누적 인하 폭은 1.25%포인트로 확대됐다.

RBI는 FY26년 GDP 성장률 전망을 6.8%에서 7.3%로 높이고, 물가 전망은 2.6%에서 2.0%로 낮췄다. 정책 스탠스는 '중립'을 유지했으나, 향후 성장·물가 상황이 안정될 경우 추가 완화도 가능하다는 여지를 남겼다. RBI 총재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골디락스 국면'이라고 평가하며, 성장과 물가 모두가 안정적이어서 정책 여력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현재 시장에서는 FY26년 중 추가로 25bp 인하 가능성이 남아 있으며, 그 시점은 2026년 2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조치는 시장에서 '예상 범위 안이면서도 완화적 서프라이즈'로 받아들여졌다. 인하·동결 전망이 엇갈리는 가운데 금리 인하와 대규모 유동성 공급을 동시에 내놓은 점이 정책 지속성 신호로 해석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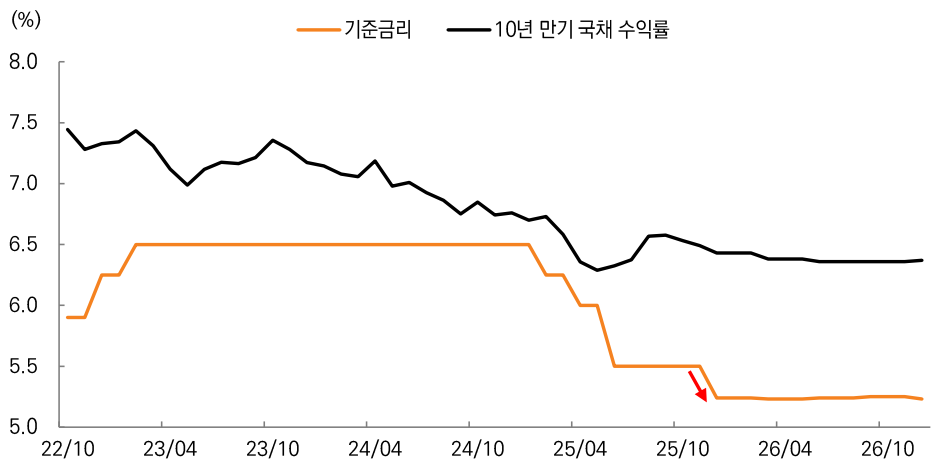
금리 민감 업종의 수혜도 예상된다. 유동성 공급 강화로 은행과 NBFC의 조달비용 부담이 완화될 수 있으며, 성장률 상향으로 대출 수요 증가도 기대된다. 소비자 대출 금리 하락은 자동차·내구재 수요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며, 전반적 내수 업종에 우호적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된다.

표 3. 2025년 12월 RBI 통화정책회의 주요 내용 정리

구분	내용
기준금리 결정	기준 금리 25bp 인하 → 5.25%
2025년 누적 인하 폭	총 125bp 인하 (연초 대비)
유동성 공급 조치	1조 루피 규모 OMO(국채 매입) 50억 달러 외환 스왑 실시
성장률 전망(GDP)	6.8% → 7.3%(상향 조정)
인플레이션 전망(CPI)	2.6% → 2.0%(하향 조정)
정책 스탠스	중립(neutral) 유지
RBI 평가	'골디락스 국면(저물가 + 견조성장)' → 추가 완화 여력 존재

자료: RBI,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5. 기준금리와 10년물 국채 수익률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인도 자동차 산업, 11월에도 견고한 성장세 유지

인도 자동차 산업은 11월에도 전반적으로 탄탄한 성장 흐름을 유지하며, 10월 축제 시즌에 나타난 수요 강세가 이어지는 모습을 보였다.

주요 승용차 제조사들의 도매 판매량(제조사 → 딜러사 출고 기준)은 전년 대비 22.4% 증가하며 높은 성장세를 기록했다. 이륜차 부문에서도 히어로 모터스(Hero MotoCorp)가 31.5%, TVS 모터스(TVS Motor)가 26.8% 늘어나는 등 견조한 흐름이 지속되었다. 트랙터 판매도 전년 대비 28.6% 증가하며 강한 성장을 보였다.

이 같은 확장세는 10월의 모멘텀이 유지된 가운데, 부가가치세(GST) 2.0 세율 인하 효과, 축제 시즌 수요, 소비 심리 개선이 맞물린 결과로 해석된다. 9월 말부터 GST 세율 조정이 시행되면서 기존에 28%였던 소형차 세율이 18%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엔트리급 차량뿐 아니라 컴팩트 SUV, 대형 SUV, 출퇴근용 오토바이, 고배기량 이륜차 등 전 차량 카테고리에서 높은 수준의 수요가 유지되고 있다.

또한 농촌 지역에서는 도시보다도 더 안정적인 수요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양호한 작황 전망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영향으로 보인다.

소매 판매(딜러 → 소비자 판매, 월별 등록 기준) 역시 승용차와 트랙터가 각각 전년 대비 19.3%, 56.1% 증가하며 강한 성장세를 보였다. 다만 이륜차는 전년 대비 3.1% 감소했는데, 이는 지난해 베이스가 높았던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종합적으로 보면, 축제 시즌 종료 이후에도 수요가 견조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농촌 지역의 적극적인 수요, 소비 지출 확대, 결혼식 시즌 수요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단기 수요 둔화 가능성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표 4. 인도 자동차 월별 도매 판매량 추이

	25.11	24.11	전년 대비(%)
승용차			
마루티 스즈키 (Maruti Suzuki)	229,021	181,531	26.2
마힌드라&마힌드라 – 자동차 부문 (M&M Auto)	56,336	46,222	21.9
타타 모터스 – 승용차 부문 (Tata Motors – PV)	59,199	47,117	25.6
현대자동차 인디아 (Hyundai Motor India)	66,840	61,252	9.1
합계	**411,396**	**336,122**	**22.4**
2륜차			
히어로 모터스 (Hero MotoCorp)	604,490	459,805	31.5
바자즈 오토 (Bajaj Auto)	379,714	368,076	3.2
아이셔 모터스 – 로열 엔필드 (Eicher Motors – Royal Enfield)	100,670	82,257	22.4
TVS 모터스 (TVS Motors)	497,841	392,473	26.8
합계	**1,582,715**	**1,302,611**	**21.5**
트랙터			
마힌드라 트랙터 (M&M Tractor)	44,048	33,378	32.0
에스코트 (Escorts)	11,032	9,455	16.7
합계	**55,080**	**42,833**	**28.6**

자료: SIAM,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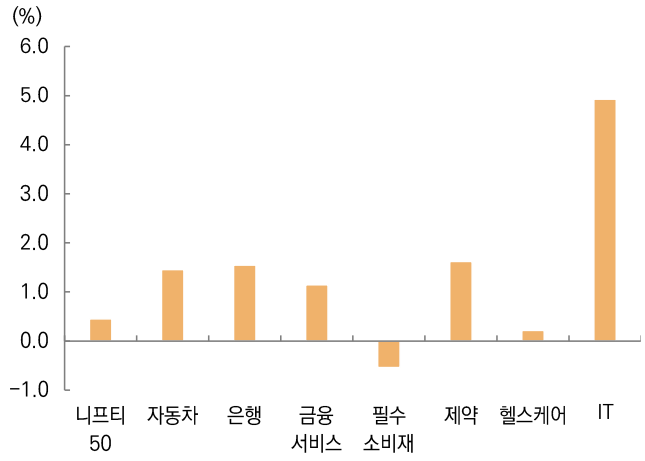
표 5. 인도 자동차 월별 등록 대수 추이

	25.11	24.11	전년 대비(%)
이륜차(2W)	2,502,018	2,583,120	-3.1
승용차(PV)	392,732	329,321	19.3
트랙터(Tractor)	124,595	79,831	56.1

자료: Vahan Database,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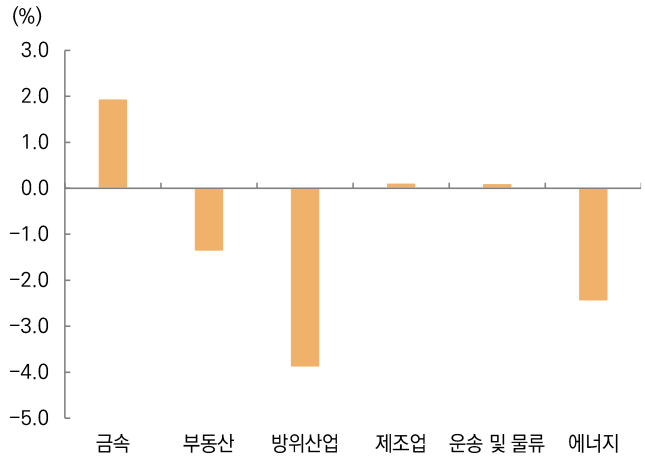
인도 주요 데이터

그림 6. 지난 2주간 인도 주요 업종 수익률 비교 I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7. 지난 2주간 인도 주요 업종 수익률 비교 II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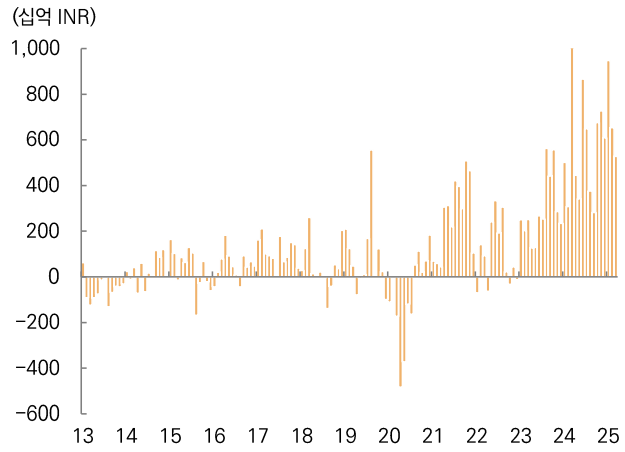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6. 인도 관련 주요 국내 ETF 수익률

ETF명	운용사	투자수익률 (%)						
		1주	2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Tiger 인도 니프티50 (45387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0.5	-1.0	2.2	9.5	9.9	3.7	-
Tiger 인도빌리언컨슈머 (47973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1.6	-1.4	1.2	2.2	15.0	5.6	-
Tiger 인도 니프티50 레버리지(합성) (236350 KS)	미래에셋자산운용	-2.7	-3.0	3.0	14.3	14.4	-1.5	64.5
Kodex 인도 Nifty50 (453810 KS)	삼성자산운용	-0.8	-1.4	2.2	9.0	9.2	3.2	-
Kodex 인도타타그룹 (477730 KS)	삼성자산운용	-0.8	-2.5	0.4	1.2	-0.2	-16.3	-
Kodex 인도Nifty50레버리지(합성) (453820 KS)	삼성자산운용	-1.2	-3.3	3.0	13.3	12.2	-1.8	-
Kodex 인도Nifty미드캡100 (0000H0 KS)	삼성자산운용	-1.3	-1.6	1.6	9.1	7.4	-	-
ACE 인도시장 대표 BIG5그룹액티브 (487920 KS)	한국투자신탁	-0.7	-1.8	0.6	4.4	5.8	-7.0	-
ACE 인도컨슈머파워액티브 (487910 KS)	한국투자신탁	-1.8	-3.3	-0.3	-0.1	10.8	-6.3	-
KIWOOM 인도Nifty50(합성) (200250 KS)	키움투자자산운용	-0.7	-1.3	2.4	8.8	8.7	2.1	35.3
RISE 인도디지털성장 (498610 KS)	KB자산운용	0.2	-0.7	3.7	8.9	9.2	-	-
에셋플러스 인도일등기업포커스20액티브 (0002C0 KS)	에셋플러스자산운용	-2.9	-3.4	-1.1	1.5	1.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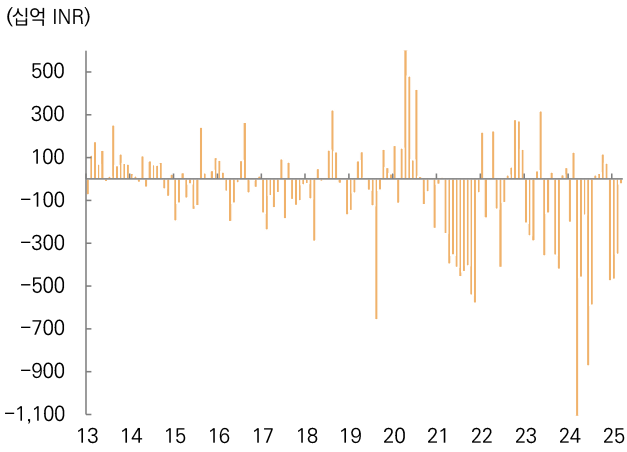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8. 국내기관 투자자 주식 순매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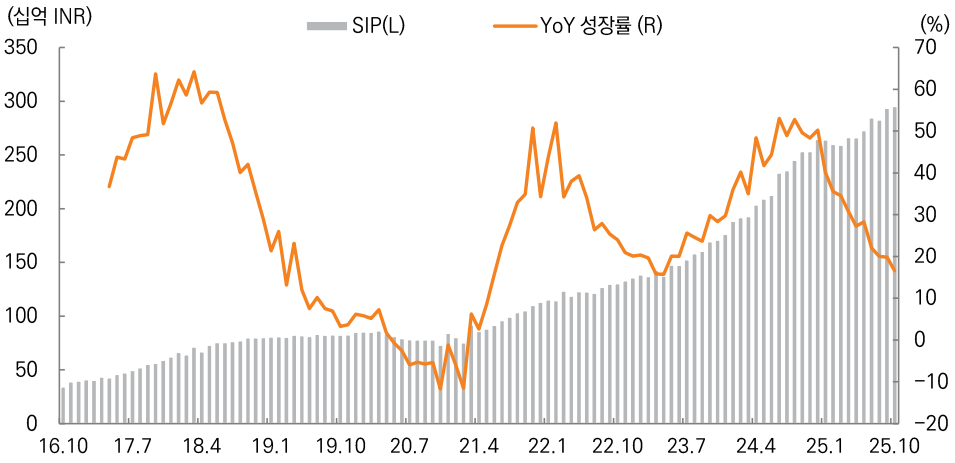
자료: Moneycontro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9. 해외 투자자 주식 순매입액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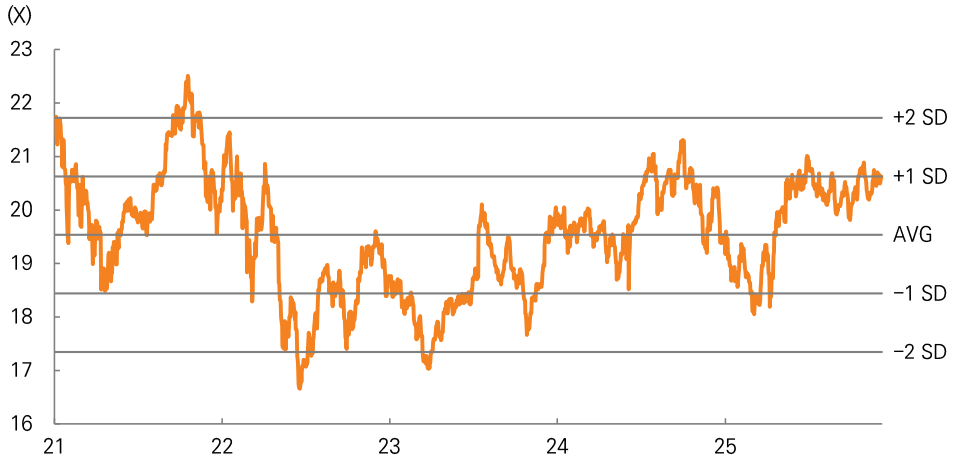
자료: Moneycontrol,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0. SIP 적립식 펀드 월 단위 유입액 추이



자료: AMFI,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그림 11. Nifty 50 밴드 차트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표 7. Nifty 50 주요 기업 수익률*

기업명	시가총액 (십억 INR)	지수 비중(%)	2주간 수익률 (%)	투자수익률 (%)					
				1주	1개월	3개월	6개월	1년	3년
Reliance Industries Ltd	20,849	10.0	-0.4	-1.6	4.2	11.8	7.2	17.9	26.1
HDFC Bank Ltd	15,433	7.4	0.5	0.1	2.1	3.9	2.8	9.6	24.4
Bharti Airtel Ltd	12,646	6.0	-2.5	0.9	5.4	11.7	13.7	33.1	149.8
Tata Consultancy Services Ltd	11,716	5.6	2.8	3.3	8.2	7.7	-3.6	-24.6	-5.5
ICICI Bank Ltd	9,955	4.8	1.7	0.2	3.7	-0.7	-3.9	5.6	49.2
State Bank of India	8,968	4.3	-0.1	-0.2	1.6	20.1	19.5	14.7	57.4
Infosys Ltd	6,715	3.2	4.6	3.3	9.4	14.5	4.9	-13.4	-1.4
Bajaj Finance Ltd	6,521	3.1	4.4	2.6	-1.7	11.0	11.8	53.9	57.3
Larsen & Toubro Ltd	5,555	2.7	0.3	-0.9	4.0	14.4	10.4	5.4	93.6
Hindustan Unilever Ltd	5,495	2.6	-2.4	-3.6	-1.6	-8.8	1.2	-2.6	-9.3
Maruti Suzuki India Ltd	5,119	2.4	1.9	1.1	5.2	6.7	32.1	45.4	85.2
ITC Ltd	5,074	2.4	-0.7	0.2	0.2	-0.6	-3.8	-6.0	27.1
Mahindra & Mahindra Ltd	4,622	2.2	-0.9	-0.7	0.7	0.4	20.6	21.9	195.1
HCL Technologies Ltd	4,567	2.2	4.7	2.4	11.3	20.9	4.4	-9.1	48.8
Sun Pharmaceutical Industries Ltd	4,331	2.1	1.4	-0.1	6.7	14.2	7.9	1.0	73.7
Kotak Mahindra Bank Ltd	4,286	2.0	3.2	0.3	3.2	10.5	4.1	21.4	11.2
Axis Bank Ltd	3,981	1.9	0.5	0.5	4.9	21.5	7.4	8.4	42.6
UltraTech Cement Ltd	3,417	1.6	-1.1	-0.6	-2.1	-8.4	3.7	-1.5	61.1
Titan Company Ltd	3,385	1.6	-2.3	-2.1	1.2	4.2	7.5	10.2	45.8
Bajaj Finserv Ltd	3,350	1.6	2.1	0.7	-0.3	4.4	5.4	28.3	28.3
Adani Ports and Special Economic Zone Ltd	3,261	1.6	2.0	-1.4	4.2	11.9	3.1	20.5	69.0
NTPC Ltd	3,135	1.5	-1.0	-1.2	-0.9	-0.2	-1.1	-10.2	84.6
Oil & Natural Gas Corporation Ltd	3,035	1.5	-2.3	-1.5	-2.0	6.3	3.5	-2.6	67.8
Bharat Electronics Ltd	2,974	1.4	-2.3	-2.5	-1.8	9.4	4.4	30.7	278.7
Asian Paints Ltd	2,847	1.4	3.2	3.5	13.7	17.5	33.6	23.5	-6.0
JSW Steel Ltd	2,842	1.4	1.9	-0.5	-0.8	5.5	16.0	16.1	53.6
Eternal Ltd	2,822	1.3	-3.2	-3.0	-4.5	-11.3	11.7	-3.5	346.8
Wipro Ltd	2,725	1.3	6.3	3.8	9.9	7.2	6.6	-9.1	26.1
Adani Enterprises Ltd	2,674	1.3	-6.5	0.2	-1.4	1.1	-7.7	-6.7	-40.5
Bajaj Auto Ltd	2,544	1.2	2.4	0.1	4.4	-3.4	8.1	2.6	148.9
Power Grid Corporation of India Ltd	2,509	1.2	-2.8	0.1	0.9	-3.0	-6.9	-15.3	62.1
Nestle India Ltd	2,404	1.2	-2.6	-1.1	-1.3	5.0	3.6	11.1	26.3
Coal India Ltd	2,342	1.1	0.5	0.1	1.1	0.8	0.6	-2.4	64.3
Tata Steel Ltd	2,086	1.0	-0.5	-0.9	-7.9	-1.0	6.1	15.3	44.2
InterGlobe Aviation Ltd	2,076	1.0	-8.1	-7.3	-3.8	-5.7	-1.8	20.4	179.9
SBI Life Insurance Company Ltd	2,029	1.0	0.1	2.6	1.2	13.6	13.7	40.0	57.5
Eicher Motors Ltd	1,977	0.9	1.0	1.2	4.7	5.8	35.3	49.7	115.5
Jio Financial Services Ltd	1,930	0.9	0.1	-0.3	1.5	-2.4	3.5	-10.2	-
Grasim Industries Ltd	1,869	0.9	0.4	0.6	0.8	-2.0	7.1	2.0	51.9
Hindalco Industries Ltd	1,850	0.9	5.9	1.5	4.2	11.4	27.6	23.8	71.1

주: 지수 비중이 높은 순서
자료: Bloomberg, 미래에셋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본 자료를 제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본 자료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 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본 조사분석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 없이 무단 복제 및 배포할 수 없습니다.